

지역 매 아 리

완주군, 4월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완주군이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완주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2019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농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발생 시 포획활동을 하게 된다. 유해야생동물로 부터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지 소재 읍·면 사무소나 완주군청으로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완주군은 본격적인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선발된 피해방지단원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포획 시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완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총기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강신영 환경과장은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점검

김제시는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김제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공급실태 점검에 나섰다.

김제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일간 김제시와 김제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4명을 점검반으로 구성,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급유치원 등 조리학교 31개교 및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센터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지원목적에 맞게 공급되는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검사를 의뢰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 만족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교급식 점검결과 조치 및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 임도사업 추진

## 사업비 13억원 투입, 내달부터 착공 병해충 방제·산불경영 등 효율 기대

완주군이 임도사업을 추진해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 완주군은 효율적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3억원을 투입, 임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개설한 화산면 춘산리~승치리 간선임도의 잔여구간 0.56km와 상관면 의암리 소대관~신리 월암마을 2.44km 등 간선임도 2개 노선 3km를 개설하고, 구이 향거리 일원,

화산 화평리 등 2개 노선 2km의 작업임도를 개설한다.

이번 노선은 내달부터 착공에 들어가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우기철을 대비해 임도 전 구간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약 19.5km의 임도보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도관리인 3명을 정마찰이 시작되는 5월부터 상시 배치해 고상목·지장목 제거, 측구·배수로와 노면 정비 등의 유지관리를 실시

해 임도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완주군 임도는 51개 노선으로 156.66km로 늘어나게 되며, 각종 산림사업과 임산물 반출, 산림병해충방제, 산불예방 등 산림경영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임도 개설로 산불진화 등 위기 상황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기설 임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보수를 통해 상시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잠재적 재해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와 전북연구원은 26일 김제시청에서 김제 시장, 전북연구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 신성장동력산업 · 지역현안사업 해결 맞손

## 김제시-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개최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26일 김제시청에서 김제 시장 및 주요 간부공무원과 전북연구원장, 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로 민선7기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김제시가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김제시 주요 현안사

업 6개분야에 대한 설명에 이어 도출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용지 축사 밀집지역 약취 해결 방안, 김제형 일자리 발굴 확대, 김제공항부지 활용 방안, 신성장동력 전략사업 발굴, 새만금 세계경제 중심도시 도약, 종자 및 첨단농생명산업 육성 등 김제시정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지속적인 협조와 교류를 통해 양 기관이 모두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최근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등 국제사업 유치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김제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민선7기 출범 이후 4년 연속 지방투자 우수지자체 선정,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산업의 추가 발굴과 현안사업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고견을 참고하여 다함께 열어나가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 금구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

김제시 금구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추진위원회(위원장 선영태) 위원과 관계자 30여 명이 선진지 현지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날 현지연수는 먼저 사업이 완료된 충남 홍성군 갈산면과 서천군 한

산면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서천군 한산면과 홍성군 갈산면은 각각 2013년도와 2017년도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지자체로 본 사업을 통하여 소재지 간판정비와 도심지 경관길 개선, 복지센터 건립과 소재지 주차장을 정비하

여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선정되어 5년간 추진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55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상태로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완주군에 사랑의 향기가 가득"

## 프러포즈축제 개최 ... 5월 25일~26일, 도립미술관 일원서

따뜻한 봄날, 완주군에 사랑의 향기가 가득 퍼진다.

완주군은 오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구이면 도립미술관 광장 일원에서 올해로 4번째 프러포즈 축제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완주 프러포즈 축제는 20~3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축제로 입소문이 나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등 '꼭 가고 싶은 5월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고 있는 축제는 '내 인생의 완주는 그대와 함께'라는 주제로 사랑하는 연인, 부부는 물론 새로운 사랑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평생 잊지 못할 프러포즈를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 결혼한 부부를 위한 '리마인드웨딩', 달달한 커플 게임 '최강 커플을 찾아라' 등 특별 이벤트가 열린다.

또한, 25일 야간에는 러브콘서트, EDM 파티, 러블리 포토존, 작은결혼식 체험, 로컬푸드 러브푸드존, 프러포즈마켓 등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펼쳐진다.

이외에도 축제장 분위기를 더욱 빛낼 수 있는 감동의 선물샵 운영을 위한 프리마켓 셀러와 SNS



홍보와 현장 지원·모니터링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단(청춘사랑지기)을 4월 2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프러포즈축제는 구이면에 위치한 아버지 경각산과 어머니 모악산이 만나 생명의 근원과 풍요의 상징인 구이저수지를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엮어 만들어진 축제이다"며 "지역 청년과 관광객이 같이 만들어 가는 사랑스러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 실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6일 안전보안관, 안전제난과, 교통행정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초등학교 앞에서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과 안전다짐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7대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민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했다. 7개 안전무시 관행이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같은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불안정한 관행을 말한다.

올해는 이중 불법 주정차 근절을 첫 번째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일상생활에서 정착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시에서도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4월 1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

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이다.

불법 주·정차는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17.12월)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중점관리구역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신문고 앱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신고하면 시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